

“생계급여 확대 · 예술인 고용제도 도입 등 위기를 기회로”

충북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시책

충북도는 2021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시책'을 발표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분야 51개 제도 및 시책을 담았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기존 기업별 5명에서 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까지 가입 인원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결혼과 중소기업 장기근로를 이끌기 위한 충북도의 역점 시책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선정기준이 월 소득 146만2887원으로 2.68% 인상돼 보장대상이 확대되며, 교육급여는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학생 교육수요에 맞게 필요에 따른 자율 지출로 변경되며 지원금액도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38% 대폭 인상된다.

올해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본격 지급한다. 청년 분리지원 제도는 취학 ·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에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1가구로 편성돼 지원받지 못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됐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경제 · 일자리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1.5%)되고, 상시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을 기존 88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 운영 하중하며, 융자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내린다.

이외에도 우수장수기업, 수출의탑 수상기업, 2021년 신 · 중설 착공기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 · 예술 분야에서는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 여행 ·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액이 1인당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어 문화예술 체험기회가 확대된다.

지난해 실업과 고용불안 등으로 지속적 창작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인에게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안정된 생활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정 · 축산 분야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카드사용처가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농에게는 기

술 · 경영분야 심층 컨설팅을 통해 경영부족으로 인한 실패를 방지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 · 안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폭 확대된다. 2020년까지 314대 보급했던 것을 2021년에는 3배 가량 확대해 900대를 보급하며, 차량 구매 보조금은 3250만원으로 2019년 도와 같다. 또한, 수소충전소도 2개소를 신설해 수소차 이용편의성을 지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물질이나 위험물 취급이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더 효과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올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국가경찰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민생치안 사무를 수행하였다면 올해부터는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1개 시 · 군 주요사업으로 먼저 청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100가구에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이 1인당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충주시는 안전속도 5030 지역을 시내 공업지역(12.3km)으로 확대한다. 입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입산부는 시내 공영주차장 6곳에 무료 주차할 수 있다.

제천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관 · 난관 복원수술비를 지원하고 한방난임지원 대상을 사실상 부부까지로 확대한다. 결혼이민자의 고향방문을 위한 양복항공료를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보은군은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을 개관해 군민에게 독서와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옥천군은 군내 거주 청년 30명의 월세를 지원하고, 전입보상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본인은 10만 원에서 13만원, 배우자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한다.

영동군은 모바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서비스를 도입하고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

영동와인터널 입장료 면제 대상을 추가 ·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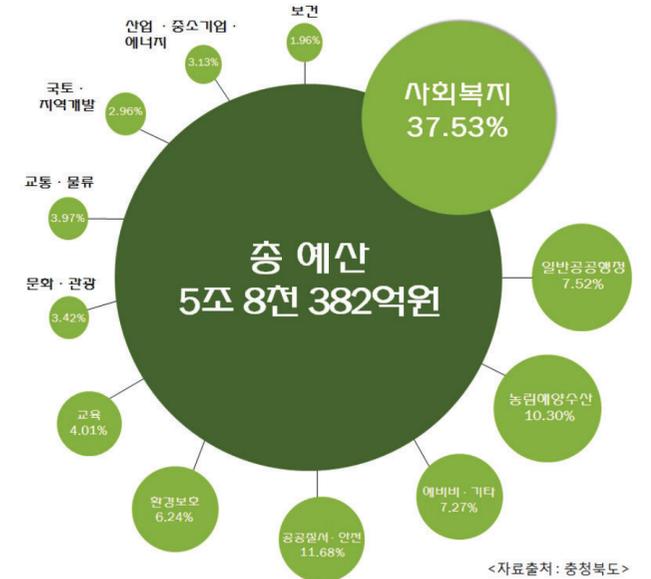
증평군은 장애인 복지카드 배송 서비스를 시행, 우편배송을 통해 복지카드를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진천군은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확대 개편하며, 생겨진천 치유의 숲을 개장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괴산군은 성인용 보행기를 노인 100명에게 지급하고, 노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군내 경로당 302개소에 한강장비를 지원한다.

음성군은 지방세 고지서에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안내 서비스



충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시책 8개 분야 51개 제도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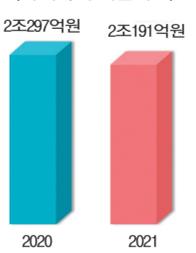
를 도입하고 구강보건센터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단양군은 고효율 · 저비용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단양소식지를 발간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금연교육을 받거나 금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한다.

한편, 도는 2021년도 예산으로 5조 8천382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서 의결, 확정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천323억원(14.3%)이 증가했다.

▶ 관련기사 6면에

<사회복지 예산비교>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지난해 대비 105억원 감소했다.

충북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13곳 선정

예산 2억6천만원 확보... “농업인 육아 부담 해소 기대”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1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도내 13개소 어린이집이 선정됐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이 열악한 읍면지역의 어린이집을 활성화해 여성농업인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1년 선정된 전국 98개소 중 충북도는 청주 4, 제천 2, 옥천 1, 영동 2, 진천 1, 괴산 2, 단양 1 총 13개소가 선정

되며, 2억6천여만원을 지원한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농촌지역의 상시 영유아 현원이 3인 이상 20명 이하인 열악한 시설로서 시장 · 군수가 직접 운영 및 위탁하거나, 기존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전에 시군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지원된 충북도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2개소로 옥천 안내행복한어린이집과 괴산 송면어린이집이 있

으며, 농촌여성들이 보육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준경 도 농업정책과장은 “2021년도 13개소 선정은 지금까지 지원된 2개소(옥천1, 괴산1) 대비 대폭 확대된 규모로서, 폐원 위기에 있는 농촌어린이집의 열악한 보육환경 및 여성농업인의 육아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여성농업인들의 육아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도록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비 부담 해소’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청주 한국병원에 설치... 중증장애인 맞춤형 장비 · 전문인력 등 갖춰

충북도는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 구강 및 치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권역센터인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2020년 12월 31일 청주 한국병원에 설치하고 치료를 시작했다.

그동안 충북에는 센터가 없어 고난이도의 전문 치료를 요구하는 구강 질병을 가진 장애인들은 인근 타 시도 센터를 이용해 시간과 경비의 부담이 있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치료 의뢰서비스 접근성 및 전

문성 향상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 구강 전문치료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와 구강질환 예방사업, 장애인 치과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중심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에 중앙센터(서울대 치과병원)를 비롯해 12개 시도에 권역센터가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충북센터는 2018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3억 2100만원(국비 · 도비 각 50% 부담)을 투자하여 연면적 697.37㎡의 규모로 진료실 3개(전신마취 가능 진료실 2포

함), 회복실, 교육실 등 시설을 갖췄다.

행동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맞춤형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난이도 구강진료로 보다 질 높은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북도는 올해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확보해 장애 정도에 따라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까지 지원하여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말 휴일 제외) 운영하며, 진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내원 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 · 스프링제본
칼라복사 · 칼라출력
대형코팅 · 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충주시 드림스타트 사업 대통령 표창

조직구성·운영 안정성·전문화된 사례관리 등 고평가

충주시가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시범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예방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2020년 드림스타트 사업 보고대회에서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담당자가 참석해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기관표창 선정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조직구성,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 대상자 및 연계기관 만족도 등 9개 영역 23개 지표별 서류 및 현장 방문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충주시는 조직구성 및 운영의

안정성, 전문화된 통합사례관리, 지역인프라 활용 및 관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09년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지역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했으며 지난해 37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신 아동과 학부모, 후원자, 사업수행기관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저소



충주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시범 평가'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독 아동뿐 아니라 충주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충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2018년도에도 드림스타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제천시 임신부 지원 서비스 빛났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운영... '행안부 장관 표창' 다양한 복지 서비스 '원클릭'으로 신청·수령·확인까지

제천시가 도입·운영한 '맘(MOM)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가 2020년 대표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서비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집에서 신청, 수령, 결과확인까지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제천시는 2020년 원스톱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난해

7월부터 충북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임신부가 임신 진단 후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부인과와 협업을 통해 임신부 영양제, 엽산제, 철분제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임신부 주차장 택비(배승비 착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직장으로 바쁜 임신부의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확산 시기에도 공백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제천시는 충북에서 처음으로 '맘(MOM)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 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부터 분반 산부인과와 협력해 임신부 영양제지원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으로 '마음이 건강한 엄마, 행복한 가정' 베이비 마사지 교육과 '코로나블루 극복하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신부 유아 가정의 서비스 이용 편의와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접근시 LED 전광판으로 '경고'

제천시, 어린이 보행안전 위해 '스마트 IoT 보행로' 설치

제천시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해 최근 '스마트 IoT 보행로'를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스마트 IoT 보행로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LED전광판 및 스피커, 바닥 경광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차량접근을 알려주고 차량운전자에게는 어린이의 보행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 스마트

서비스 분야에 선정돼 지원된 특별교부세 8000만원으로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선정했으며 사전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 설치됐다.

현재 '스마트 IoT 보행로'는 용두초등학교 및 중앙초등학교에 설치됐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해 설치한 '스마트 IoT 보행로'.

음성군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 설치

음성군은 올해부터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를 설치해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등 아동학대 조사·보호체계가 공공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보호 대상 아동 발생 때 신속한 보호를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아동학대 대응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지난해 11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업무 교육과 현장 실습을 완료했으며, 이달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을 채용했다.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긴급신고(043-872-1391)를 접수하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현장조사를 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

에서 응급조치로 아동의 안전을 위위로 위촉한다. 조병국 음성군수는 "아동학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 변호사와 의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비복지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편집고문 겸주필 김춘길 (28583) 충북 충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043-234-0849
E-mail: cbssn@naver.com 홈페이지: www.cwin.or.kr

청주시 공공 아동보호체계 '전국 최우수'

전담인력 배치·유관 기관과 협력 등 보호체계 구축 주요

청주시가 보건복지부의 2020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난해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제도 정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대상 1곳, 최우수 2곳, 우수 2곳 등 모두 5곳 대해 포상을 결정했다.

청주시는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및 역량 강화, 교육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사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아동보

호체계 개편 홍보 적극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청주시는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돼 최우수 기관 포상금 1000만원과 우수 공무원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독서 사각지대 아이들에 힘 보태고파"

단양군청 독서동아리 '책 읽는 단양, 도서·선물 기탁'



단양군청 독서동아리 책 읽는 단양 회원들이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에 도서와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책 읽는 단양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등에 30여권의 도서와 선물을 전달했다.

책 읽는 단양은 단양군청에 근무하는 김영준 인구정책팀장을 비롯한 10여명이 올해 결성한 독

서동아리다. 이번엔 기부한 도서와 선물은 다문화가정 등 독서사각지대 아이들에게 전달됐다.

김영준 회장은 지난해 공무원 노조문제대전에 입상해 받은 상금의 전액을 독서함양 및 발전기금으로 내용을 정도로 독서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회원 중 권효주씨와 이효주씨도 야학 등을 통해 문해인 교육, 책 읽어주기 등 독서선행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동아리는 매달 책 환권을 읽고 1천원을 기부하는 사랑의 독서 릴레이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도서도 릴레이를 통해 한해 동안 마련한 기금으로 구입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그 의미를 더했다.

김영준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이 독서를 가까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행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 추진한다

'인구증가 지원조례' 개정... 전입지원금·상품권 지급 등

진천군은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인구구조 변화 등 군 여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대폭 개선·확대해 정책의 수요자인 군민이 체감할 수 있게 했다.

새로 추가한 내용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전입 지원, 전입세대 환영기념품 제공, 공공기관 전입 직원 지원 등이 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전입 지원은 인구현황 분석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다.

핵가족화와 비혼주의 문화 확산으로 증가하는 1인 세대 중 다수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자체 조사한 결과 전입신고는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실거주 미전입자들의 전

입신고 유도를 위해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전입하면 2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주는 시책을 새로 마련했다.

외부 출퇴근 근로자들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뿌리내리기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 타지자체에 2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면 1인 100만원, 2인 이상 22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근무자 중 약 40%가 수도권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것을 반영해 직원이 군으로 전입하면 2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군으로 전입하는 모든 세대에 환영기념품으로 3만원 상당의 전입사탕상품권을 지급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기존 지원 내용도 대폭 수정했

다. '타 지역 거주 1년, 전입 후 6개월 거주'의 제한을 '전입 즉시'로 완화했다. 1인 세대 증가에 맞춰 2인 이상으로 규정했던 '전입세대' 기준을 1인 이상으로 낮췄다.

인구증가 유공업체 지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명 이상이 기숙사로 전입 시'에만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규정을 '직일 1명 전입 시'로 바뀌고 업체 과 업체 임·직원 지원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을 위해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했다"라며 "인구증가 추이를 분석해 시책을 보완·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2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계룡센터, CJ수원반포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 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유동(증평점), 송림푸드, 청주유통, 에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과(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블유, (주)피아미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쟁블레이스, 침양식품, 라온엘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성, 설악추어탕, 좋은아침, (주)케이씨푸드, 명동보리밭, 삼육두유사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천 청주대점
- 청주사람나눔푸드뱅크
- 참조은유통, 웰리스(분평동), 백설유통, 홀플러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트(개신점), 파리바게트(북대점), 비누아투, 좋은아침(북대점), 두레주르(비하계동점), 단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롤링핀(지웰시티점), 이즈굿에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주오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트(가경대우), 청도너츠, 바로구운빵, 도당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버식품, 자연솔푸드, 푸드글로벌, 한솔, 비전상사, 태성운수, 도담, 동고개농장, 제훈유통, 장수유통,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과(주)
- 청주제일푸드뱅크 파리바게트(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산남점, 농협하노점, 용암효성점, 용암한대점, 건영점, 뉴타운점, 율랑탄타빌점, 율랑점, 개신점, 수일곱영농조합법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등, 용암서문우등,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대환베이커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두레주르 율랑점
- 청주새영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트쌍용점, 두레주르한라점, 두레주르산업단지점, 기본좋은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창출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칠떡궁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락,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르 금천장점, 파리바게트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공천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르 금천뉴타운, 따베오 베이커리, 행복떡집, 유신민방, 파리바게트 청주제일점, 떡이랑, 두레주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트 청주용암덕일점, 영농조합법인 희여울, 홀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암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획(후생사), (주)월드이십일메이치, 자연애연합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기네 생고기장점, 파리바게트 청주제일점, 주주랩, 서울우유지스, 시아스유통, 두레주르 분평점, 목행청과, 금관할인마트 율랑점, 청주특대(주), 무외에 두와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주르 엘마트점, 구기네 농이보강, 조마루 감자탕, 독도가든,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정당로타리클럽, (주)한일후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 두레주르(김홍욱), (주)번영육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천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부부대찌개, 단킨도너츠(금왕), (주)이가자연면, (주)후드원, 김점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백암), 삼육두유, 파리바게트(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르메트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도식품, 윤지영, 김경식, 리브가왕만두전방, 김수향, 멜리엔(이월점), 에스엔푸드, 자해식품, 명가떡
- 집, CJ푸드빌, 해마로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한 떡집, 아삭식품, 명가떡집, 생거진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돌식품, 대하유통, 멜리엔충주교현점, 떡보의하루, 두레주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과유통, 삼일상회, 서울우유지스충주대리점, 원원유통, 육사청과, 은혜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자미원에프앤지, 충주청과, 하나로 베이커리(충주점), 한아를청과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메리점,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씨푸드, 문우통,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대상김치, 푸른촌, 풀이리엔, 365일마트, 크리스피리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사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선데이푸드, 대상청정원

증평군 보훈수당 10만→15만원 인상

충북 내 최고 수준... 배우자·유족은 5만→10만원 증액

증평군은 이달부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충북도내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배우자 및 유족 수당은 기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 5만원씩 증액해 지급한다.

군은 지난 9일 국가유공자(유족)를 예우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 3건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안은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개정안 3건 모두 증평군의회에서 지난달 22일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달부터 시행되며 현재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390여명이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자 보훈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돕는 다양한 보훈시책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은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을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독립만세 발원지 기념비 건립, 명절 보훈가족 위문대상자 확대 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괴산군이 지난달 31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 성평등강사단을 위촉했다.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지정... 5년간 164억원 지원

괴산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하고 그 혜택은 모든 주민이 누린다.

여가부는 해마다 도시 조성 비전과 5대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다.

군은 이번 지정으로 올해부터 5년간 164억원을 투자해 5개 분야,

20개 세부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연초에는 여가부와 협약해 본격적으로 '모두가 만드는 행복한 미래 여성친화도시 괴산' 만들기에 돌입한다.

군은 앞으로 5년간 양성평등 전문강사단 육성, 여성이 신나는 곳 잡 프로젝트, 여성친화거리 조성, 여성친화마을 만들기, 거점별 여성소통공간 설치 등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민선 7기 역점사업인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연구용역, 조성위원회와 주민참여단 구성을 시작으로 성평등 강사단 구성, 군·의회·관계기관 업무협약 등을 추진했다.

여성친화대학 운영, 여성 소모임 지원, 스마트 호신용품 보급 등의 사업도 진행했다.

이치영 군수는 "전 주민의 마음을 모아 노력한 성과"라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여성과 남성, 사회적 약자 모두가 행복한 괴산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건강랭킹 전국 군 단위 8위

지자체 종합 '건강랭킹' 조사... 간암 발병은 전국 최저

증평군이 병원·의료건설협회 사 엘리오엔컴퍼니(ELIO)가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지자체 종합 '건강랭킹'에서 전국 83개 군 단위에서 8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6대 암(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당뇨병, 고혈압 환자수, 1천명당 의사수 등 25개 지표를 이용해 평가한 결과다. 이번 평가 결과 증평군은 종합 점수 59.4점으로 전국 83개 군 단

위에서 8번째, 충북도내 10개 군 단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 당 간암 환자수는 전국 군 단위 평균인 273명보다 무려 2배 이상 적은 114명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대장암 환자수 7위, 폐암 환자수 9위를 비롯해 당뇨병 환자수 5위, 고혈압 환자수 5위를 차지해 건강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인했다.

또한 1년 중 병원에 안가는 날을 의미하는 건강일수에서도 전



국평균 116.6일보다 많은 169.2일로 6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로 증평이 도내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임

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와 건강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동 '공립 너나들이지역아동센터' 개소

학산면 서산리 일원 40평 규모... 방과후 돌봄 '걱정 뚫'

영동군 학산면의 학부모와 아동청소년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립 너나들이지역아동센터'가 지역아동들과 학부모들의 기대감으로 이달부터 센터 운영을 개시했다.

공립 너나들이지역아동센터는 학산면 서산리 968-1번지 일원에 132㎡(40평) 규모로 건립됐다.

2019년 특별교부세 국비 2억

원 확보 후, 2020년도에 토지매입, 철거, 건축건립비 4억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정상 운영을 목표로 조속하게 추진했다.

다락방독서실(9평) 추가 설치로 실제 이용평수는 165㎡(50여평) 규모로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방과후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탄생했다.

센터내에는 집단지도실, 다락방독서실, 야외놀이터 등 아동들

의 눈높이에 맞추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구성됐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산·양산권역 아동 및 청소년들의 보호, 교육, 급식지원, 놀이와 복지 서비스 연계를 제공해 지역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용아동 정월 29명이 벌써 마감될 정도로 학산·양산면 권역에서 벌써 인기가 상당하다.

지역주민들도 그간 아동과 청소년들이 변변한 돌봄교실과 운영비

없이 임시적인 시설에서 7여년의 기다림 후 새로 문을 연 센터이기 예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군은 기존 읍면단위에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과 더불어, 방과후 돌봄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등 지역아동들의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학산면 학부모 김 모(39) 씨는 "그동안 지역에 방과후돌봄 아동센터가 없어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가 소외되었는데 센터 건립으로 우리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기쁘다"라며, "센터 조성에 꼼꼼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보은군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맞춤형 식품배출·비대면 교육 등 보건소 방문 접수

보은군보건소는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신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영양지도와 보충식

품을 지원해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 수유부, 만 66개월 이하인 영유아 중 영양위

험요인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보유자로,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의 소득가정이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건강상태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식품물품을 가정에 직접 배송하고 영양관리와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에 대한 비대면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전화로 예약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급여증명서, 산모수첩(임신부), 출산증명서(출산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 건팀(043-540-5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취약계층 1400가구 농식품바우처 제공

2인 기준 채소·과일 등 월 5만7000원어치 구매 가능

괴산군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비 등 9억원을 들여 올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며, 도 내에서는 괴산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괴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50% 이하 1천400여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이날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2인 가구 5만7천원, 3인 가구 6만9천원 등이다.

제공되는 바우처 카드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괴산농산물유통센터 내 한살림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 계란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면 된다.

꾸러미 배송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 금액을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군은 이 제도가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 완화와 푸드 플랜 사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옥천 인구 늘리기 박차... 전입 시 20만원

대학재학생 10만원 상품권 지급

옥천군은 인구 유입 시책의 하나로 전입 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1일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전입자 1명당 20만 원의 전입 보상금을 주고 2인 이상 가구와

학생·군인·군무원, 국적취득자, 기업체 임직원도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다.

시간 차이를 두고 전입하거나 직업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규정도 보완했다.

옥천 관내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전입 시 축하금으로 옥천사랑상품권(10만원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보상금 지급 시기는 전입 후 6개월 이후, 관내 대학 전입생 축하금은 전입 신고 즉시 준다.

군 관계자는 "전입 보상금 지급 시 사각지대를 없애고, 직업별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전입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군 복지시설 전담 공무원제 시행

옥천군은 신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전담 공무원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시설 22곳, 아동복지시설 3곳, 장애인복지시설 1곳이다.

군은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과 등 6개 과의 팀장 26명에게 각 1개씩 시설을 맡겼다.

전담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해당 시설 입소자

의 이상 증상 유무를 1일 1회 이상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게 된다.

또 의심 증상이 나오면 군보건소와 연계해 즉시 검사받도록 조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9천억원 투입

설 명절 전까지 위기가구 지원 등에 4천억원 긴급 투입 취약시설에 의료인력 5천여명 지원·선별진료소 확충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지원을 위해 총 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설 전까지 병상 확충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4000억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하고 진단검사비 지원 등에 1253억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원을 내달 12일 전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명분(866억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원), 거점 전담병원(101억

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중증증 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을 받고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 전까지 40억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치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달 중 지원금 선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에 243억원을 지원해 약 5000명을 투입해 방역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원)을 한시 지원하고,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근무한 3300명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근무한 870명이 대상이다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전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 141억원이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에 지원한다.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를 101억원을 투입해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 3574명 입소 가능) 운영에 561억원을 투입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의도병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만5000원)·유급휴가비(1일 13만원 상한) 652억 원(40만5000명분)도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고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해 보상에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 1856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과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이하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이다. 금융재산은 1인 774만원, 4인 1231만원, 7인 1624만원이다.

올해 고용 창출 '속도'... 코로나 쇼크 완화한다

3월까지 '83만명' 공공일자리 집중 채용 기간 운영 등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분기 고용 창출에 속도를 낸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 혁신·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며 고용 효과가 큰 벤처·창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일자리의 올 1분기 집중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예산 38%(5조1000억원)을 1분기 초 집중 집행해 이달 50만명, 2월중 70만명, 3월까지 83만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과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재택 근무 전환, 참여기준 완화, 활동인정범위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방역 일자리(9000명),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일자리(7000명)를 신설·채용함으로써 고용환경 변화 및 방역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 계획된 사회서비스일자리 6만 3000개 중 44%에 해당하는 2만 8000개 일자리를 1분기 내에 채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역 방역,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자체 일자리 사업을 확장한 후 상반기 채용을 추진하고 1회·시·도 일자리책임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공무원도 3만 6000명을 새로 채용한다.

경찰·해경·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 3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며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 후보자 등 6450명도 2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채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유급휴가 훈련시 근로자 및 대체인력 인건비·훈련비 지원, 노사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제도의 연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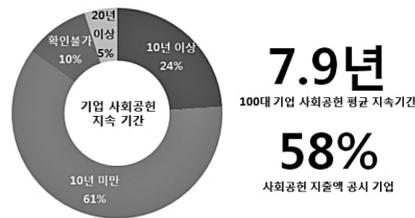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설 전에 집중 집행한다. 소상공인의 영업피해 지원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11월 지급 개시했다. 소상공인 임차료 용자 프로그램,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통해 고용유지도 지원한다.

청년·여성에 대한 추가 고용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의 조기 취업 및 노동시장 이탈 방지도 적극 지원한다.

청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5만명), 취업성공패키지(3만 9000명)를 올 1분기 동안 집중 시행하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을 1분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이 평가한 국내기업 사회공헌 점수는 '6.35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0 사회공헌 백서' 발간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2020 사회공헌 백서, Social Gap Report를 발간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발간한 백서를 통해 국내 상위 100대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국민이 기업에 바라는 역할과 책임을 살펴보고 서로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주)트리플라잇과 유엔글로벌 콤팩트한국협회(UNGC)가 공동으로 제작한 2020 Social Gap

Report에는 국내 상위 100대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 분석 및 전국 17개 시·도 성인남녀 15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사회공헌 과제, 사회공헌 현황 진단, 대국민 사회공헌 우수 프로그램 평가, 코로나시대의 사회공헌 분석 자료가 담겨 있다.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비용은 1조 7950억원으로 1개 기업 당 평균 약 310

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 지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0.14%였고 상위 30대 기업군의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율 평균도 0.14%로 100대 기업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100대 기업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418개를 분석한 결과 평균 7년 11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5년 이상의 장기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전체의 13%(55개)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규모는 250만 7096시간을 기록했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492억 371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약 22만 5180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지난 2018년에 비해 자원봉사 시간은 7.3%(19만 8487시간) 줄었고 참여 인원은 41.9%(16만 211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 그룹(삼성·현대차·SK·LG·롯데·포스코·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은 올해 2월부터 약 560억원

의 자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피해자·지역지원(46%)으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해외 피해 국가 등에 구호성금과 의료용품, 인프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역경제 및 취약계층 지원(28%), 협력사 지원(16%), 고객지원 및 소통(11%)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유형으로는 위생용품과 구호 식료·생필품 등 물품기부(37%)가 가장 많았으며 현금기부(27%), 임시 치료시설, 자체 유통망 등 인프라 지원(13%), 무상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은 기업의 코로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6.35점(10점 만점), 진정성은 3.01점(5점)이라고 답해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 사회공헌 백서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사회문제 우선순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과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실제 기업 사회공헌과의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방향에 대해 '기업·시민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 안전정보 '한눈에'

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인터넷 누리집' 통해 공개

앞으로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건축물·시설물의 기본정보와 각종 안전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 인터넷 누리집(http://safewatch.safemap.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홈페이지 및 인프라 구축 등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학교·어린이집·체육시설 등 14개 분야의 건축물, 시설물의 기본현황과 안전점검 분야별 결과, 안전등급 등 684만여 건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개별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국민들은 이를 일

일이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인터넷 지도를 이용해 건축물, 시설물 관련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은 총 4단계에 걸쳐 75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2023년까지 소방, 액화가스·도시가스 등 나머지 19개 분야의 안전 정보를 포함해 총 33개 분야의 안전정보를 담을 계획이다.

실시간 선별진료소 정보 '정부24'서 제공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정부24에 접속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등을 한번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는데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일반시민들을 위해 한시적으

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대표 포털인 '정부 24'를 통해 전국에 있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임시검사소의 현황을 한곳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선별진료·검사소 운영 알림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부24'에 접속하면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선별진료·검사소 목록, 운영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 확인을 위한 지도 검색도 가능하다. 현재(2021. 1. 7. 기준) 전국에서 선별진료소 619개와 임시선별검사소 172개(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영지역 및 개소수 변동 가능)가 운영되고 있다. 선별진료소·검사소 외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승차검진 가능 검사소도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품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삶 만족도 '보통'... 부모 부양자녀는 감소

충북도, 2020 사회조사 결과 평균 10점 만점에 5.76점 육친군 6.05점으로 도내 1위... 10명 중 6명은 노후준비

충북도민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76점으로 보통 이상의 약간 만족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 2018년 대비 도민의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한 '2020 충청북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8월 24일 기준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교육, 보건, 사회통합, 환경, 안전, 주거·교통, 복지 등 12개 분야 53개 항목을 11개 시군 1만 160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76점이며 도내 11개 시군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5.71로 나타났다.

이러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에 대해서는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 64.1%로 나타나 응답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는 부모 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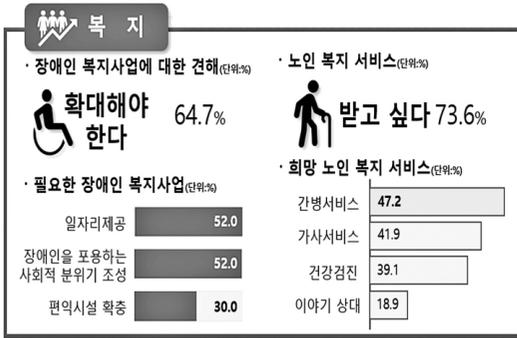
인식변화와 함께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보육료 지원'이 45.6%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여성근무여건 개선', '육아휴직 활성화' 응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은 보육시설 중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 44.7%로 2018년 대비(53.2%) 감소했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보는 비율은 30.3%로 2018년 대비(21.2%) 9.1% 증가했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가 48만 2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 42만9000원, 초등학교 32만 4000원, 대학생 22만 2000원, 미취학 9만9000원 순으로 2018년 대비 증가했다.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



이 있다'는 응답이 74.4%며 문제점으로는 '임시위주의 교육' 35.9%,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33.9%, '교육정책이 많이 변한다' 17.5% 순이다.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5점 만점)은 '전반적인 사회 안전' 항목이 3.29점이며, '신종 전염병' 항목은 2.65점으로 가장 낮아 전염병 확산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정책 중 장애인 복지사업은 '확대해야 한다'가 64.7%였

으며 필요정책(복수응답)으로 '일자리 제공' 52.0%, '장애인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52.0%,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30.0%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받고 싶다'는 응답이 73.6%로 받고 싶은 서비스는 '간병서비스' 47.2%, '가사서비스' 41.9% 순이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도와 시·군의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소와그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최우수 기관'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복지부 품질평가서 'A등급' 기관운영 등 전반적 우수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센터장 유옥현)는 복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품질평가는 2020년 지역 사회복지서비스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1,089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내용 등 전반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으며, A등급부터 F등급까지 5단계로 시소와그네는 A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소와그네는 만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는 '2020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여 받은 현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 영유아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지원사업, 사례관리 등에 걸친 사업을 전개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난 2012년 시작하여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

원서비스, 가족관계형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옥현 센터장은 "앞으로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충북도, 임산부 대상 48만원상당 지원... 12월까지 신청

충북도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48만 원 상당(보조금 80%, 자부담 20%)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도내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이며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또는 출산) 확인 서류를 소지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

(<http://www.ecoemall.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선정된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쇼핑몰에서 본인부담금 20%를 제외한 순수 지원금을 적립금 형태로 받게 된다.

임산부 지원 품목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 충북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로 임산부와 자녀에게 유익한 먹거리로 구성했다.

"도민 모두 희망 잃지 말고 위기 극복했으면"



박문희 도의장이 4일 의정 집무실에서 노영수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100개를 전달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신속항원검사키트 2500회분 기탁... 취약계층 전달

충북도의회(의장 박문희)가 4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에 총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100개(2천500회분·2천 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기탁은 의회에서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등의 고위험시설과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

자 등에 신속한 항원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뜻을 함께 모으면서 이뤄졌다.

박문희 의장은 "도민과 지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취약시설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기탁하게 됐다"며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도민 모두 희망을 잃지 말고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시·군 보건소를 통해 취약계층 진단검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주)사람인 충주돌봄 '댄 주변 생활도우미' 서비스 시행

주변지역 돌봄 취약계층에 무료 가사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충주의 사회적기업 (주)사람인 충주돌봄(대표 백수진)이 '2021년 댄 주변 지역 생활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댄 주변 지역 생활도우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지사장 문경훈)로부터 수탁 받아 (주)사람인 충주돌봄이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댄 주변 지역의 장애인, 홀몸노인, 중증장애인 등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무료 간병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13명의 생활도우미가 매일 90여 가구를 방문해 가사 지원,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명의 요양보호사가 병원에서 상주하며 무료 간병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주)사람인 충주돌봄의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랑의 난방유로 이웃사랑 실천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취약계층 13가구에 전달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열)는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난방유를

지역 내 취약계층 13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난방유 후원에 참여한 기

업 및 기관(12개소)으로 (주)제리부로, (주)에이치케이칼(TH), 서울장수주식회사, 서한사업(주), 진천산수사업단지, 진천신용협동조합, 진천중앙시장상인회, 사석노인요양원, 청담노인요양원, 행복의 집, 참사랑재가복지센터, 올림교회가 참여했다.

이번 수혜를 받은 어르신은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돼 너무 감사하다"며 연신 고마움을 감추지 못했다.

유열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도 소외 계층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12개 기업 및 기관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천시어린이집연합회 성금 기탁

모든 보육교직원 자발적 동참으로 1500만원 모아 전달 집중호우 봉사활동 등 연이은 선행으로 '지역사회 귀감'

제천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심성열)가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와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모았다.

지난달 29일 연합회는 모든 보

육교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 모금한 1천500만원을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고 이상천 시장에게 전달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

하고 수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도 전제 어린이집이 동참하는 등 지역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심성열 회장은 "제천의병의 후속담배 위기의 순간 더욱 빛을 발하는 시민의식이 코로나19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여성 및 가족단체들의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채희숙)도 코로나19 고령 분담 성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했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2021년 달라지는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사회복지 · 보건분야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 '21.1.)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와 가입기회를 확대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규모를 13,400명으로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도 4회(변동가능)로 확대한다.

*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만 15~39세)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 지원(지원요건) 꾸준히 근로를 통한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등

* (20년) 5,000명, 7,321백만원 → (21년 정부안) 13,400명, 27,854백만원-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000명 늘어난 9,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0,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과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향상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만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서비스 및 양육지원 제공을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첫 해인 2020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 연제구 등 19개 시·군·구의 21개 보건소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2021년 시범보건소를 추가로 공모하여 총 50개 보건소로 확대·운영된다. 2021년 1월부터 시범보건소 추가 공모, 선정, 전담인력 채용, 교육 등의 일정을 거쳐 7월부터 확대된 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2021년부터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구축에 따라 처음으로 슈퍼바이저 10명을 시군구에 1명씩 배치한다. 10개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배치된 슈퍼바이저*는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의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지도·조언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슈퍼바이저 배치를 통해,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관리사와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등 아동과 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슈퍼바이저) 아동통합사례관리 경력 5년 이상으로, 슈퍼바이저 기본·심화교육 이수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슈퍼바이저 자격검정을 통과한 전문가

** (제도) 슈퍼비전 업무 공식화 및 슈퍼바이저 직위 신설, 월 20만원 상당 지급 등-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기능·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43만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매내장비 보급을 확대하여(20년 10만대 → '21년 20만대)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한다.

●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1월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 신설,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및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하게 된다. 변화된 양육환경에 따른 영유아의 정상적 성장발달의 주기적 점검을 위해 건강검진을 도입함으로써 영유아기 건강진진을 도모했다. 전 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하여 특정연령에만 받을 수 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하여,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 받을 수 있게 됐다.

* 특정 연령(만 20, 30, 40, 50, 60, 70세) 각 1회 → 해당 연령대(20~70세) 1회 수검
식물위생법상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시 일반건강검진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검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했다. 다만, 본인 동의시에만 연계가 가능하며,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실시가 필요하다.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시범지역 '21년 4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며, 아동은 주치의의 예약을 맞은 치과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게 된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치솔질 교육, 치면 세척(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총 4만 5천 원 외래 진료비 포함) 중 약 7천 5백원을 지불하게 된다.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여 더 많은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에는 전국에 45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된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단가(원) : (20) 13,500 → (21) 14,020 △이용자수(천명) : (20) 91 → (21) 99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자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를 확대*하여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 (20) 2천명, 단가 1,000원 → (21) 3천명, 단가 1,500원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급여 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 확대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After
20년에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After
중증에는 지역 간 필수의료서비스 격차가 있었습니다.	'21년부터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확충됩니다.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After
지급대상 장애인 고용의무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인상합니다.

부담기초액 상한
현행 1,078,000원 - 1,768,310원(당차)
부담기초액 상한
개정 1,094,000원 - 1,822,480원(당차)

보건복지부

보조·연장교육교사 확대 배치 시행일 : 2021년

Before	After
· 보조교사 2,000명 · 연장교육교사 2,000명	'21년부터 보조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보조·연장교육교사가 확대 배치됩니다.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시행일 : 2021년

Before	After
'20년 고 2·3학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 시행합니다.

교육과정
입학금 X 수업료
교과서비 X

여성가족부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시행일 : 2021년 1월

Before	After
기존 경력단절을 고려한 새일여성인턴 지원대상 및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1년부터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새일여성인턴 지원 대상인원 연간 6,177명
새일여성인턴 1인당 지원금 (기업) 인건비 240만원 (여성) 취업준비금 60만원

새일여성인턴 지원 대상인원 연간 7,777명
새일여성인턴 1인당 지원금 (기업) 인건비 240만원 + 새일고용장려금 90만원 (여성) 계속지원금 60만원

질병관리청

회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After
일부 회귀질환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1년부터 지원대상 질환이 확대됩니다.

의료비지원 1,014 질환 진단지원 126개 질환
의료비지원 1,078개 질환 진단지원 175개 질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현재 43만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매내장비 보급을 확대하여(20년 10만대 → '21년 20만대)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건강보험 산정특례(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등 질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되며 이에 따라,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인하*되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 (적용 전) 입원 20%, 외래 30%~60% → (적용 후) 입원·외래 10%확대된 질환의 산정특례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교육부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초·중·고 학생은 286천원, 중학생은 376천원, 고등학생은 448천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됐다.

* 중위소득 50%(예 : '21년 기준, 4인가구 243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고용노동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시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이었으나, 20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한다.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2020년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2020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된다. 2021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가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 7조)

지원금액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한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 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확대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요조치 금지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요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된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요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불이요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결핵 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을 확대한다. 2020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수혜대상을 의료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에서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 (20)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전국 결핵검진 사업(21.2만명, 6,907백만원) → (21)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거동불편 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21.6만명, 7,179백만원)

신년사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비대면 속 사회복지 현장의 새로운 대처 방안 모색해야”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1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은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모두가 소처럼 열심히 살고 풍성히 거두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충북사회복지신문에 신년사를 쓰기 위해 지난 1년의 기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노트에 2020년 2월 21일부터 코로나19 시작이라고 메모되어 있네요. 그때부터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를 안겨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속제는 비대면 상태에서 사회복지 현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가? 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백신을 맞으면 완전히 사라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또 다른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현장도 위기 상황 속 활동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충청북도에 위기 상황에 도 각중 교육이나 회의를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하는 복지종사자들 노고 알지 못하는 현실 안타까워 위기상황 속 사회복지현장에 활동·대응 매뉴얼 준비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나름대로 멈추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활동 내역을 요약해 보면 3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후원금 전달과 호프 푸드 팩(hope food pack: 2000개) 전달을 시작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명서 발표·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지원으로 농축산물 꾸러미(2800개) 나눔 행사 실시·한곡난방공사 지원(2300만원)으로 우한시 교민 수용지역인 진천군민 후원물품 전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3차례에 걸쳐 약 2억원 상당의 위생품과 생활필수품을 도내 취약계층에게 전달을 한 바 있으며, 직원들과 코로나19로 수고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위한 “턱분에 헬렌지”에도 동참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북부권(제천, 단양, 충주, 음성) 수해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충북광역푸드뱅크를 통해 긴급지원 물품 이머전시 1200세트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과의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촌일손돕기 행사와 3차례에 걸쳐 연탄 나눔 봉사활동도 실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속제는 비대면 상태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가? 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백신을 맞으면 완전히 사라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또 다른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현장도 위기 상황 속 활동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충청북도에 위기 상황에 도 각중 교육이나 회의를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신축년 새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반드시 종식시키고,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에 맞춤형 충북경제를 모색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4% 충북경제, 일등경제 충북을 마무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북도정은 극난대망(克難大望)의 도정방향 아래 먼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키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종식의 3대 원칙은 ‘조기진단, 조기치료, 조기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충북은 숨어있는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먼저 감염취약시설·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나머지 전도민들에게는 PCR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진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해 충북도는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추진하여 코로나19 대유행을 차단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상황 속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신년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코로나19 종식·경제 활성화 등 올해 새해는 극난대망의 한 해로”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우직함과 여유의 상징인 소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큰 꿈과 희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극난대망(克難大望)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최악의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과수화상병, 대규모 수해 등이 겹쳐 시련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충북 미래 100년을 향한 단단한 주춧돌을 놓아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상황 속 4% 충북경제 달성·서민경제 회복 공공 인프라 확대·약자배려 등 도민들과 위기 극복해 나갈 것

신축년 새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반드시 종식시키고,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에 맞춤형 충북경제를 모색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4% 충북경제, 일등경제 충북을 마무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북도정은 극난대망(克難大望)의 도정방향 아래 먼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키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종식의 3대 원칙은 ‘조기진단, 조기치료, 조기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충북은 숨어있는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먼저 감염취약시설·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나머지 전도민들에게는 PCR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진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해 충북도는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추진하여 코로나19 대유행을 차단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상황 속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서민경제 회복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배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에 편성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토록 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온라인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충북먹거리비밀 등을 지원하여 흔들리는 서민경제의 뿌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자를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로 확대하고,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장애인회관 건립,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 사회적 약자 배려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 기능 보강, 여성 장애인 진화병원 지정·운영, 국립 소방병원과 단양군 보건의료원 착공 등 공공 의료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10조 8000억원 규모의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잠재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충북 경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과 여성이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투자유치 이 전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청년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청년·여성 유튜브 마케팅 전문 양성과정 등을 추진하여 청년과 여성의 고용창출 및 자립 기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우 어렵고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1만 5000여 공직자 모두는 도민 여러분을 모시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마다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 박문희 충청북도의회 의장

“도민이 주인 되는 도정으로 의회 역량 강화·현안 해결 앞장”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흰 소의 해를 맞아 여유와 풍요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어 모든 도민 여러분께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충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위기 속에서 더욱 든든한 도민의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삶에 힘이 되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며 올해 의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 광역생활경제권 구축 ‘집중’ 지방자치 실현 위한 의견 청취 도의원 역량 강화 등 온 힘

첫째,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예산심사, 정책집행에 대한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바탕으로 협력의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대입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에도 힘쓰겠습니다. 동시에 지역발전 등을 위한 과제에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함께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비대화에 맞설 지방의 생존전략으로 ‘광역생활경제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화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물론 충청권 4개 시·도의 동반 성장을 이끌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생활권 통합의 기반이 될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에서부터 청주국제공항 및 KTX오송역 활성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에 이르기까지 충북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회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새 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소송의 기준 연령은 낮아지고, 주요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은 높아집니다. 제11대 도의회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담긴 시대적 사명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도의원 모두가 도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이 같은 의지를 담아 신년화두를 ‘가치가자(可致詞話)’로 정했습니다. ‘가치가자’는 ‘옳은 것은 함께하고 꾸짖을 것은 묻는다’라는 뜻으로, 도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도민을 대표해 옳은 것은 함께하고, 나무랄 것은 묻는다는 한자의 의미와 함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속에서도 도의회와 도민이 같이 가자는 한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민과 도의회가 서로의 마음을 함께하고 소통·협력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의의 정당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북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봉사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의회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로 법률호닥터 사업 안내. 법률호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원만한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 이메일: wma7259@naver.com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호닥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원명안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폭행사건에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구속까지 당하였습니다. 이후 다행히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

A.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감옥을 간 사람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형사보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

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형사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청구서, 무죄판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동정

박은영 월드비전 용암복지관 관장 임명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 위기가동지원 박은영(사진) 팀장이 청주 용암복지관 관장에 임명됐다.



월드비전은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지원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따라 이번에 새 관장을 임명했다. 월드비전 용암복지관 관장은 그동안 월드비전 충북본부장이 겸직했던 자리다.

박 관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청주 지역의 모든 아이들과 주민들을 섬기며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박 관장은 1994년 월드비전 연세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 2015년 월드비전 국내사업팀장, 위기가동지원팀장 등을 역임했다.

지역사회봉사단

다사랑회, 한글·한자 교육 봉사활동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다사랑회(회장 김정숙)는 지난 11일 청주시 우암동

평화상가 새로운교회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자 교육을 하였다.

다사랑회는 2013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숙 회장은 "코로나19로 매주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교육 봉사를 통해 대상자분들에게 삶의 원동력을 줄 수 있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n@naver.com)을 통해 문의의 가능하다.

복지정보 제공

[코아드]코아드 자문료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door.com)

[여송사회복지재단]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바보의나눔]코로나19 관련 cpbc라디오 모금 방송 사연 대상자 추천 안내

- 방송명: cpbc라디오(평화방송) 힘들땐 전화해
방송일시: 매주 월~토 15시~16시
방송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고 ARS 및 무통장 모금 진행(방송일로부터 2주일)

[KT&G복지재단] 2021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일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신청대상: 저소득(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청소년(만7세 이상~만18세 이하)

[KBS강태원복지재단]2021 사회복지 공모 사업 신청 안내

- 지원내용: 사업비 최대 500만원 지원(1기관당 1사업 신청 가능)
공모분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지원사업(디지털 원주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사업(미디어 취약계층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

[KT&G복지재단] 2021년 수리소리마소리(청각장애인후원사업) 후원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 청각장애인(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지원내용: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후원물품(※기관사업비, 기관후원물품 제외)

[굿네이버스]신한금융그룹 지정기탁 '위기가정 재가지원사업(3차년도) 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18년 5월 ~ 2021년 4월(상시신청)
신청대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정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개인 및 단체

[굿네이버스]신한금융그룹 지정기탁 '위기가정 재가지원사업(3차년도) 사업 안내

- 신청기간: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신청방법: 거주지역 내 신청기관을 통해 신청(개별신청불가)
*신청기관: 굿네이버스 사업장, 사회복지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단, 지원금 관리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자원 봉사자 모집

▶ 미술활동 봉사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1.31 ~ 2.28

▶ 일반천 배달 봉사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1.31 ~ 2.28
전화번호: 043-835-4288

▶ 사무보조 봉사

관리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활동기간: 1.31 ~ 2.28
전화번호: 043-212-9194

▶ 이마용 봉사

관리센터: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1.31 ~ 2.28
전화번호: 043-216-1365

▶ 가정방문 심리상담 봉사

관리센터: 청주상당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31 ~ 2.28
전화번호: 043-288-3060

▶ 중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남이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31 ~ 2.28
전화번호: 070-4149-2345

▶ 저소득 가정 11 멘토링

관리센터: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1.31 ~ 2.28
전화번호: 043-857-5960

▶ 재활프로그램(공예 등) 보조

관리센터: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1.31 ~ 2.28
전화번호: 043-291-0199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1.31 ~ 2.28
전화번호: 043-267-4590

▶ 아동학대예방 인형극 공연 봉사

관리센터: 충북남부아동전문기관
활동기간: 1.31 ~ 2.28
전화번호: 043-731-3685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사회복지·의료시설
코로나19 방역 강화 수칙

- 1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 분리 조치
2 봉사자 및 이용자 감염병 예방교육 주1회 이상 실시
3 시설 환경 및 위생관리 실태 확인
4 타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이동·방문하지 않기
5 시설에 외부인력(프로그램 운영, 조리 등) 출입시키지 않기
6 매주 한 번 코로나19 검사 받기



복/지/만/평

걸림돌

이창신 www.bokmani.com



언덕이 있을 때는 디딤돌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길이 되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지킬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